

한국의 '교양시민 독자'는 살아 있다

글_ 이명원(문학평론가)



최근의 한국문학, 그 가운데서도 소설의 침체 현상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독자층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한국소설이 밀려나고 있는 것은 제법 오래된 현상이지만, 최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형서점의 소설 베스트셀러 코너를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10위권 이내의 순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외국소설들이다.

왜 한국의 독자들이 모국어로 씌어진 작품을 외면하고, 외국문학 작품으로 관심을 이동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완벽하고도 투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공지영의 소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기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교양시민 독자'가 읽을 만한 작품이 풍부하지 않다는 것이 나의 가설이다.

소설은 왜 읽는가. 이야기에 대한 본능적인 호기심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이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소설을 읽는 것을 체질화하는 독자의 경우는 단순한 이야기성에만 머물 경우, 오히려 이로부터 멀어질 확률이 높다.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한 응용예술이 현대에는 그야말로 멀티하게 다품종 대량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를 포함한 이미지 내러티브 장르의 출현이 소설의 입장에서 위협적인 것은 이 때문이다.

오히려 오늘날 소설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것은 소설가들 자신이 독자층의 지성적 수준에 미달되는 '말장난'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를 교양과는 무관한 언어적 쾌락 내지는 작가 자신의 고백록 정도로 간주하는 태도 때문이다.

소설위기에 대한 불신감이 문제

문제는 소설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지한 독서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독자들이 가진 작품에 대한 불신이다. 나는 그 독자들을 일컬어 '교양시민 독자'로 명명하고 싶다. 대체적으로 3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이 독자들은 문학에 대한 고전적 신뢰감을 견지하고 있으며, 비슷한 관점에서 인문학과 접목을 통한 교양과 인격의 성숙, 이를 통한 현실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욕망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 교양시민 독자들의 대다수는 '소설읽기'에 대한 불신감에 빠져 있다. 그 불신감은 이즈음 발표되는 소설들이, 그러한 독자들의 욕망을 자극하지도 충족시키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문단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조차 이들에게는 공교롭게도 유치한 말장난, 언어적 페티시즘에 들린 '외계어'의 덩어리로 인식된다.

작가들은 독자들을 우습게보면서, 흔히 예술가로서의 고독한 자의식을 강조하는 태도를 취하지만, 이들 교양시민 독자들은 그런 작가들의 태도를 '똥폼'으로 간주한다. 소설을 읽어봐도 도대체가 지성적인 고뇌도 빈약하고, 삶의 구체적인 접착을 통해 가능해질 인생에 대한 통찰력도 부족하며, 게다가 명료하지 않은 문장으로 '연애담'이나 시시한 '불륜담'을 늘어놓는 작품들을, 도대체 누가 신뢰감을 갖고 지속적인 독서를 진행시킬 수 있으랴. 작가들의 뼈를 깎는 자기 성찰이 필요한 사항이다.

자기 갱신을 게을리 않는 작가 공지영

이런 독자들에게 공지영의 소설들이 유익한 참고점으로, 지속적으로 읽혀지고 있음은 흥미롭다. 그렇다면 왜 공지영인가?

먼저 공지영의 성실한 자기 갱신 노력을 거론할 수 있다. 공지영은 등단한 이후 꾸준히 작가로서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통해 여성들의 각성된 자기 의식의 문제를 드러내는가 하면, 《봉순이 언니》와 같은 소설에서

는 가난으로 상징되는 불행한 운명 속에서 성숙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 성숙의 드라마를 표현해냈다.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별들의 들판》에서는 베를린 현지에 체류하면서 그가 목격했던,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적 도정 속에서 신념이 꺾이거나 상처 받은 인물들의 내면을 유려하게 표출해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어떠한가. 종교적인 문제이면서 사회적 난제라고 할 수 있을 죽음과 구원의 문제를 밀도 있게 표현해냈다. 아마도 이 소설은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의 연장선상에서의 심화된 고민이 소설적으로 육화된 작품일 것이다.

이러한 자기 갱신적 글쓰기는 특히 소설을 단순한 '읽을거리'로 간주하지 않고, 이를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성숙한 통찰력을 발휘한 것으로 독자들에게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최근의 소설들에서 미달되고 있는 지점이고, 반대급부로 공지영에 대한 대중적인 신뢰감이 깊어지는 부분인 것이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만을 단절하여 평가하자면, 사실 그렇게 높은 관심을 얻기 힘든 작품으로 보일 수도 있다. 사형집행을 앞둔 죄인과, 종교적인 동지에서 출발했으나 결국은 개인적인 사랑과 용서의 과정을 통해 자기 긍정을 획득하는 여성인물과의 사랑이란 테마는, 실상 <데드 맨 워킹> 등을 포함한 영화에서 비교적 익숙하게 발견돼왔던 소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소설 자체가 베스트셀러화의 원인으로 제시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차라리 독자들은 이 소설을 내재적으로 읽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공지영의 소설 세계 전체가 진화해 가는 과정 자체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 지도 모른다.

‘의제 형성’ 기능으로 독자 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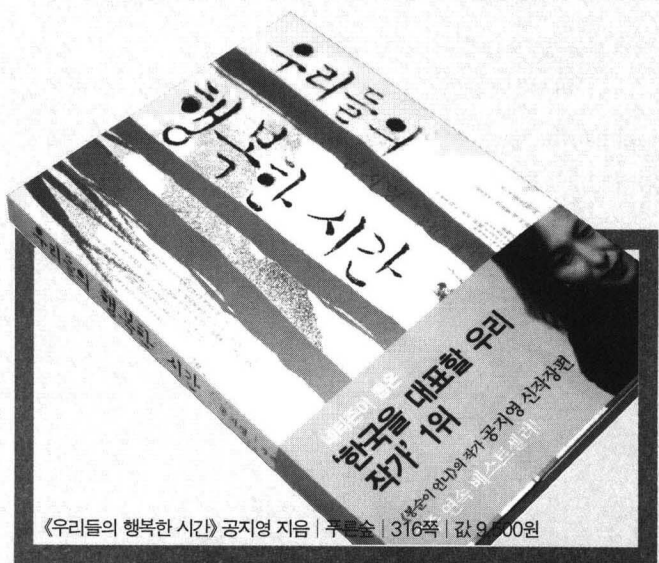
공지영의 소설을 읽는 독자들 가운데 다수를 점하는 사람들은 내가 앞에서 거론한 ‘교양 시민 독자’ 들일 것이다. 이들은 공지영의 소설이 생산하고 있는 ‘이야기성’ 그 자체보다는, 그러한 이야기의 진행 외중에 제기되는 ‘인문적 의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들 독자들은 소설을 인간이 생성해낸 글쓰기 가운데, 그래도 현재로서는 접근이 용이한 성숙한 장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독자들이기에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읽는 독자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알베르 까뮈의 《단두대에 관한 고찰》을 유력한 비교독서의 대상으로 설정할 것이다.

공지영의 소설은 그렇게 ‘의제 형성’ 기능을 갖고 있고, 저자와 독자와의 논쟁적 대화를 가능케 할 다양한 문제의식을 매번 자신의 작품을 통해 표현해 왔다. 작가는 물론 작중 인물들이 성숙해 온 바로 그만큼, 그의 소설을 읽는 독자들 역시 성숙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교양시민 독자로 명명될 수 있는 3, 40대의 독자층을 기본 독자층으로 하면서, 거기에 ‘잠재독자’인 20대 독자층까지 가세하게 됨으로써, 공지영의 소설은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로서의 위치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

런 점에서 보자면 공지영이란 이름 자체가 이들 교양시민 독자들에게는 인문적 독서를 유인하는 유력한 브랜드 네임이었던 것이다. 교양시민 독자는 살아있다. **주필**

● 이 글을 쓴 이명원은

문학평론가로 1993년 <문화일보>로 등단했다. 지은 책으로 《연옥에서 고고학자처럼》 《마음이 소금밭인데 오랜만에 도서관에 갔다》 《파문》 등이 있다. 현재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공지영 지음 | 푸른숲 | 316쪽 | 값 9,000원